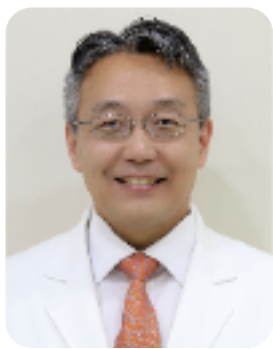




NEWS LETTER

2020년 12월 21일 Vol. 394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효과적인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방법 연구결과 발표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에 주로 발생하는 부상으로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 질환이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연구팀이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심한 회전 불안정성을 보인 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평균 4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이중다발 재건술을 시행한 48명과 전방십자인대 단일다발 재건술과 전외측인대 보강술을 동시에 시행한 47명에 대해 무릎 불안정성, 임상 점수, 재수술율 등을 조사했다.

안지현 교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 기법 중 안정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이중다발 재건술과 비교해 동시에 시행된 전외측인대 보강술의 우월성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전방십자인대 파열 환자에 대한 수술 방법 결정에 많은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최근 슬관절 및 관절경 분야 SCI 국제학술지인 ARTHROSCOP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2020 하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환자안전 중요성 인식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하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했다.

이날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이해원 병원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환자를 돌보는 임상 현장을 방문해 실무자와 소통하며 환자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을 했다.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매년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는 수술실과 회복실, 심장기능검사실, 재활치료실, 101병동, 121병동이 대상이다. 이해원 병원장은 “익숙한 환자안전 활동에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접수된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의무기록 및 진료 의뢰 회신 · 동의율 우수상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16일 4층 제1회의실에서 의무기록 및 진료 의뢰 회신 · 동의율 우수부서와 우수의료진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0년도 하반기 의무기록 우수 진료과는 외과가 선정됐으며 우수의사는 이비인후과 김도형, 산부인과 조혜정, 안과 이가혜, 소아청소년과 권욱민 전공의가 각각 선정됐다. 또 일산한방병원 우수의사는 한방내과 민선우, 침구과 장우석 전공의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진료의뢰 회신율 우수 진료과는 안과, 진료 의뢰 · 회신동의율 우수 진료부서는 소화기병센터 외래가 선정됐다.

